

‘평창’엔 이정표 광주U대회 ‘리우’엔 청신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6 리우올림픽〉



광주U대회 종합 1위를 차지한 한국선수단이 15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U대회선수촌 내 선수단장미팅룸에서 해단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청 김덕현 리우올림픽 뚝다

세단뛰기 기준 기록 통과

광주U대회에서 육상 100m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운 김국영에 이어 김덕현도 올림픽 기준 기록을 통과, 리우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한국 육상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이는 이 둘 뿐이며, 둘 다 광주시청 소속이다.

“한국 세단뛰기 지존” 김덕현(30)은 지난 12일 일본 삿포로 아즈베즈경기장에서 열린 ‘2015 한·중·일 친선육상경기대회’ 세단뛰기에서 17m00을 기록, 2016년 리우올림픽 출전 기준 기록(16m90)을 넘어섰다. 김덕현이 자격으로 다음달 열리는 베이징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내년 리우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것이다.

김덕현은 “올림픽 기준 기록을 통과해 기쁘다. 베이징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1차 목표이며, 내년 리우올림픽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덕현의 17m00은 2015년 남자 세단뛰기 세계랭킹 17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앞서 9일 광주U대회에서는 팀동료 김국영이 육상 100m를 10초16에 주파, 지난 2010년 세운 자신의 기록 10초23을 5년 만에 0.07초 앞당겨 한국기록을 다시 썼다. 김국영은 한국 육상을 10초1대로 끌어올림과 함께 세계육상선수권과 리우올림픽(기준 기록 10초16) 출전 티켓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 감독은 “김국영에 이어 김덕현도 자격으로 세계육상선수권과 리우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며 “올림픽 기준기록을 통과한 이는 한국 육상에서 이 둘 뿐이다. 자랑스럽다”고 기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선수단 해단식 열려 하계 국제스포츠 첫 1위...조직위·시민 등 힘 모아 성공대회 이끌어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종합 1위를 차지한 한국 선수단(단장 유병진)이 15일 선수촌 선수단장미팅룸에서 해단식을 하고 대회를 공식 마무리했다. 해단식에는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유병진 선수단장, 임덕호 선수촌장, 선수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적 보고, 해단식

사 및 답사, 단기 반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흥식(동신대 교수) 선수단 부단장은 성적보고에서 “한국이 금메달 47개, 은메달 32개, 동메달 29개로 스포츠 강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꺾고 1위를 기록, 하계 국제종합스포츠대회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특히 세계신기록 2개와 한국신기

록 1개, 대회신기록 31개가 쏟아지는 등 성과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2일간 광주U대회에서 종합 1위라는 역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 축하드린다. 한국 스포츠 역사의 위대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이어 “특히 성

적과 태도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였다”며 “이런 광주U대회의 모습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정표가 됐고, 2016년 있을 리우올림픽의 전망을 밝게 했다”고 강조했다. 유병진 선수단장은 “목표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에 대해 선수 여러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런 우수한 결과가 리우올림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또 “이번 종합 1위의 성적은 광주시와 조직위, 대한체육회 등의 도움이 컸다”며 “특히 열심히 응원해주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대한민국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단장은 선수단기를 김 회장에 게 반납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LPGA 본격적으로 출전해 볼까

US오픈 우승 전인지, 정식 회원 가입하면 자격 얻어

처음 출전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인지(21·하이트진로)는 “LPGA로부터 올해부터 투어에 참여하려면 다음 주 금요일(24일)까지 결정해 달라는 언질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인지는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LPGA를 올해부터 될 지를 두고 고민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금 랭킹 4위 자격으로 US여자오픈에 출전한 전인지는 일단 LPGA 투어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야 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전인지는 전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컨트리클럽(파70·6289야드)에서

끝난 제70회 US여자오픈에서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친 양희영(26)을 1타차로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그는 “(우승을 확정지었을 때) 순간적으로 멍했다”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실감이 나지 않았고 잠만 폭 잤다. 공항에 많은 분들과 함께 있으니 드디어 실감이 난다”며 살짝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메이저 대회에 출전한 감회에 대해 “셋째날 카리 웨브와 함께 라운딩을 했는데 웨브가 프로에 입문한 해 내가 태어났다. 마지막 날에는 줄리 잉크스터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꼈다”며 “내 목표가 더 뚜렷해졌다.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7일 K리그 울스타전 안산에 전시...환경보호 메시지

K리그 별들의 잔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5일 2015 K리그 울스타전 ‘팀 최강회 vs 팀 슈틸리케’에 글로벌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1600판다+’가 함께한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과 롯데월드몰이 주최하는 ‘1600판다+’ 프로젝트는 지난 2008년 세계자연보호기금(WWF)과 프랑스 조각가 파울로 그랑종(Paulo Gran-

geon)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전시 작품으로 재활용 종이를 사용해 전 세계에 남은 야생 판다 수인 1600마리의 판다를 제작·전시하는 것이다.

‘1600판다+’는 각 나라의 주요 도시나 문화유산,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 등 특별한 선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전시가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축제의 현장을 찾은 안산시민 및 축구팬들에게는 세계적인 전시를 관람하고

환경보호 캠페인에도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1600판다+’는 안산 와스타디움 N/S석 앞 트랙에 설치되며 경기 관람 시 현장에 설치된 판다 인형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울스타전이 열리는 7월 17일 단 하루 동안 특별 전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K리그 울스타전은 오는 17일 오후 7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리며 전북 현대의 최강희 감독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슈틸리케 감독의 지략대결로 펼쳐진다. /김여울기자 wool@

러 월드컵 2차예선 라오스전

9월 3일 경기도 화성종합타운서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9월3일 예정된 라오스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2차전을 경기도 화성시의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얀마와의 월드컵 2차 예선 첫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한 슈틸리케호는 9월 3일 라오스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2차 예선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77위인 라오스와의 역대 전적에서 3전 3승으로 앞서 있다. 1969년과 1970년 킹스컵에서 라오스를 만나 모두 무실점 승리를 거둔 한국은 2000년 아시안컵 예선에서 라오스와 마지막으로 만나 김은중, 설기현 등의 헤트릭을 앞세워 9-0 대승을 장식했다. /연합뉴스